

# 2027년, 국민 1인당 쌀 소비량 47.5kg

현행 공공비축재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정부는 쌀 수급이 과잉을 보일 때마다 시장격리로 급한 불을 꺼왔다. 한해 공공비축을 제외한 격리물량이 60만에 육박한 적도 있다. 그렇지만 시장격리가 더디게 이뤄지면서 격리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농촌경제연구원은 풍년이 들 때마다 반복되는 쌀값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동시장격리제는 수확기에 앞서 적정 생산량이나 소비량을 산정한 뒤 그 이상의 쌀이 생산되면 초과물량을 시장에서 자동으로 격리하는 제도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쌀 적정생산량의 102.5%를 격리지수로 제시했다. 예컨대 올해 적정 쌀 생산량이 400

## 농촌경제연구원, '자동시장격리제' 도입 주장 수확기에 앞서 적정 생산량이나 소비량 산정

만인데 415만이 생산되면 400만의 102.5%인 410만을 제외한 나머지 생산량 5만톤을 수확기에 정부가 모두 사들이는 식이다.

일본은 2004년 쌀 정책을 개혁하면서 격리지수 101%의 '지역별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했다.

전국 평균 작황지수가 101%를 넘고 해당 지역의 작황지수 역시 101%를 넘으면 발동한다.

농촌경제원 관계자는 "일시적 수급 변동에 따른 정부의 시장개입 원칙이 마련되면 (수확기 쌀 가격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을 줄일 수 있다"며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과도한 생산을 억제하는 사전적 수급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농촌경제연구원은 '2017 농업전망'에서 내놓은 올해 단경기 80kg 기준 쌀값을 13만5,000원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수확기의 12만9807원보다는 4% 높지만 쌀농가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농경연은 정부가 생산조정제 같은 사전적 수급관리정책뿐만 아니라 자동시장격리제 같은 적극적인 사후적 정책을 마련해 쌀값 불안정을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농경연은 지난해 수확기 풍작으로 쌀값이 크게 떨어졌지만 정부의 시장 격리 조치로 올해 유통량이 크게 줄어 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 모처럼 단경기 쌀값이 수확기보다 높게 형성되는 '계절전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농경연 관계자는 "올해 수확기 전까지의 시장 공급물량은 지난해보다 2.4% 줄고, 도정수율도 예전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수확기 햅쌀 가격은 작황 및 정부 차원의 비재배면적 감축계획 여부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농경연은 쌀 직불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중장기 쌀 수급·가격을 분석한 결과 산지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 2027년에는 80kg 한가마에 12만4438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47.5kg으로 줄고, 식용 쌀 소비량도 253만6000t까지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인재용 기자



이스타항공은 20일 강서노인종합복지관에서 떡국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 이스타항공, 설맞이 떡국나눔 봉사

이스타항공이 지난 20일 강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설날 떡국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지난 12월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개인 소장품으로 자선바자회를 열었던 이스타항공은 자선바자회 수익금으로 250만원 상당의 떡국을 구입해 임직원들이 손수 포장하여 강서노인종합복지관에 기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들을 위해 직접 가구를 방문해 따뜻한 떡국을 나누며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점심시간에는 강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의 배식을 도와드리며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 것으로 행사를 마쳤다.

이스타항공 최중구 부사장은 "작은 나눔이지만 이스타항공 임직원들이 함께한 자선바자회를 통해 따뜻한 행사를 열 수 있어서 뜻깊다"며, "앞으로도 국민항공사로서 주변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소아암어린이 돕기 비행기 띄기 대회 참여, 독거노인 항공편 지원, 다문화 가정지원, 쪽방촌 연탄지원 등 다양한 나눔 실천을 이어오고 있다.

/인재용 기자

# 도내 서부권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지원한다

## 중진공 전북서부, 수출·창업·고용창출 중기에 511억 지원 추진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서부지부는 올해 전북서부지역(군산, 부안, 고창, 익산, 서천) 중소기업에 지원 할 정책자금 511억원을 확정하고 수출, 창업, 고용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중진공 전북서부지부 예산은 619억원(추경 120억원 포함)으로 전북서부지역의 침체돼 있는 조선, 해운, 철강 등 취약 업종에 정책자금을 집중 지원했으며, 일자리 창출, 전라산업 육성 등 정책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했다.

올해는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사업화자금을 신설하고 내

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수출촉진을 위해 정부의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등에 수출사업화자금을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성과에 연동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수출성과에 따라 0.2%~0.4%의 이자 환급을 5년동안 매년 적용하고 운전자금 융자한도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창업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전라산업 영위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업력 3년 이상 창업기업에 대해서도 신용대출 지원 조건을 완화했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인재육성형기업 전용자금 예산을 확대

했다. 고용창출 기업에 대해 1명당 0.1% 이자를 환급해주고 운전자금 융자한도도 10억원으로 상향된다.

고용 파급효과가 높은 시설투자 기업에 대해 시설자금 금리를 0.3% 차감해 운용한다.

특히 중소기업 핵심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내일채움공제를 운영하고 가입 기업은 정책자금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서비스업 지원대상도 업종이 확대되고 R&D 사업화 연계가 강화된다.

신성장 유망 서비스 분야 등 대부분의 서비스업종에서 정책자금 활용이

가능하며, 국가 R&D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기술수용 기업이 국가 R&D에 참여해 기술개발을 완료하면 정책자금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신기철 지부장은 "현재 전북서부지역의 침체돼 있는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출, 고용, 창업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며, "수출기업과 창업 및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책자금 신청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자기진단 및 상담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서부지부(063-460-9822)로 하면 된다.

/인재용 기자

## 농협은행 전북본부, 사업추진 우수직원 승진

### 혁신도시지점 김반석, 정읍시지부 박혜민씨



김반석 박혜민

농협은행 전북본부가 사업추진 우수직원에게 특별승진을 단행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지난 19일 실시된 정기인사에서 사업추진 우수직원 2명에 대해 특별 승진을 실시했다.

이번에 특별승진한 직원은 전북 혁신도시지점 김반석, 정읍시지부 박혜민씨 등이다.

김반석씨는 책임자(4급)로 박혜민씨는 중견직원(5급)으로 특별승진했으며, 이는 직원평균 승진기간에 비해 무려 4~5년이나 빠른 파격적 승진인사이다.

이번 특별승진은 최근 3년간 사업추진 실적과 고객관리, 조직내 직원화합 등을 종합평가해 선정했으며, 특히, 박혜민씨는 사업추진 우수직원으로 특별 채용된지 3년만에 다시 중견직원으로 특별 승진되

는 쾌거를 달성했다.

농협은행 전북본부는 금번 특별 승진을 통해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건전한 경쟁을 통해 최고의 금융전문가로서 역량을 키워 나가 는 조직문화로 변화될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용구 전북본부장은 "농협은행은 앞으로도 영업현장에 우수한 인재를 배치, 현장중심의 인재를 육성하고 성과주의 인사를 확대해 농협은행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게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전주남부시장, 설 선물세트 판매소 운영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전주 남부시장의 품질 좋고 저렴한 선물을 구입할 수 있는 '설맞이 선물세트 판매소'가 이달 26일까지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내에 운영된다.

행사기간 운영되는 설맞이 선물세트 판매소는 '김영란법' 걱정 없는 저렴한 품질 좋은 남부시장 선물세트 판매'라는 타이틀로 남부시장의 거품 없는 좋은 상품을 홍보하며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더불어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남부

시장 곡물거리에서는 플랫폼을 통한 경품행사, 떡메치기 등의 전통체험 이벤트도 함께 운영한다.

각 공공기관에서도 설맞이 장보기 행사로 남부시장을 방문하며 명절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고 있다.

지난 19일 전북지방중기청을 비롯한 민관합동 기관들의 장보기 행사를 시작으로 23일 전주시, 도의회 등이 잇달아 남부시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남부시장 상인회 하현수 회장은 "침체 된 경기에 모두 어렵지만, 이번 한

국소비자원에 조사에도 전통시장에서 설정품을 구매하는 것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믿을 수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분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늘 노력하며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고자 선물세트 판매소 무료 배송 서비스 및 25일~29일 천변주차장 무료개방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 행사는 중소기업청, 전북도, 전주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남부시장 상인회가 주최 주관한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글로벌사업단(☎063-717-1336)을 통해 알 수 있다.

/인재용 기자

## 한전 전북본부, 소외계층 8세대 대상 생필품 제공

한전 전북본부는 지난 19일 정운천 국회의원실과 합동으로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보듬 문화 확산에 나섰다.

이날 행사는 해당 지역구 정운천 국회의원실, 한전 전북본부 및 남전주시 노사 간부와 봉사단원 20여 명이 효자동 등 지역 소외계층 8세대대 대상으로 노후 전기설비 점검 및 등기구 교체, 생필품 제공, 주변 청소 등 따뜻한 사랑을 전했다.

/인재용 기자

대한민국 홍삼 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眞心 홍삼주